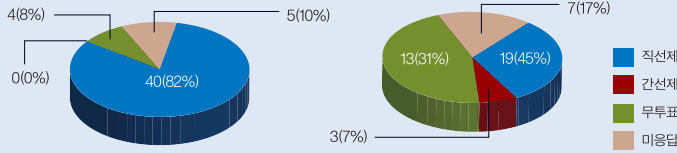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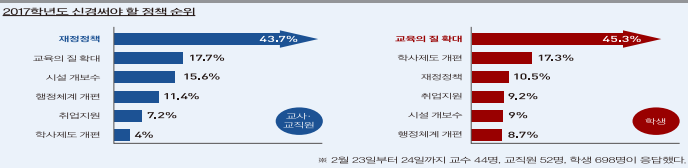


## 6» 학과 학생회장 선출, 허점 많아



## 8» 경희구성원들이 학교에 바란다



## 2017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 안내

대상 : 서울·국제 캠퍼스 재학생  
기간 : 2017년 3월 2일(목) 10:30 ~ 8일(수) 18:00  
수강신청확인서 출력 : 2017년 3월 8일(수)~  
수강신청확점 철회 : 2017년 3월 7일(화) 10:30~15일(수) 18:00



### 완공 앞둔 종합체육관

SPACE21 1단계 사업 국제캠퍼스 종합체육관이 4월 완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에 한창이다. 서울캠퍼스 행복기숙사와 쌍둥이 빌딩도 올해 완공된다.

(사진=신정인 기자)

## Newsmaker

번역가 꿈꾸는  
최알렉산드라(영어학 2017)



## ‘고려인’ 딛고 번역가의 꿈 펴다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 ‘고려인’. 러시아·중앙아시아 등에 살고 있는 한인 교포들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주해야 했던 그들은 아직까지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인으로 한국에 정착하여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이겨내고 영어학 부에 진학한 최알렉산드라(영어학 2017) 양을 만나봤다.

최 양은 고려인인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중학교 때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살았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많이 놀렸어요. 생김새가 다르다고.”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생활은 재밌었다고 한다. 식당을 하던 어머니와 유리창 시공을 하던 아버지의 표정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최 양 또한 영어 학원을 다니며 번역가의 꿈을 키웠다. 그러나 식당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어머니는 큰 이모의 권유로 6년 전 한국으로 먼저 떠났다. 1년 후 알렉산드라 양은 엄마의 도움으로 한국에 올 수 있었다. 아버지는 지난 해 한국으로 왔다.

“한국의 첫 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비탄내가 너무 심했거든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맡아볼 수 없던 냄새였어요.” 경기도 광주에 살았던 최 양은 이후 고려인과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경기도 광주 새날학교에 입학했다. “한국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한 단어에 여러 뜻이 있다는 게 생소했어요.” 언어를 배우는 것을 좋아했던 최 양은 6개월 만에 TOPIK 2급을 딸 수 있었다. 꾸준히 공부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5급을 땀다. 현재 최 양의 한국어 실력은 구어적, 문어적 맥락에

따라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자연스러웠다.

한국어가 익숙해져갈 무렵, 최 양은 다른 일을 시작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용했었던 러시아어를 한국어로 통역해주는 일이다. 시작은 KBS에서 찍은 영상의 번역이었다고 한다.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재밌었던 일을 말하는 내용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던 번역가의 꿈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광주에서 열린 박람회나 이종격투기 선수의 대회 일정동안 통역을 맡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을 발판 삼아 최 양은 우리학교 재외국민 전형으로堂堂히 합격할 수 일하는 그녀의 부모님에게 등록금은 무거운 짐이었다. 다행히 한 장학재단의 도움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 언어 공부 좋아 품은 꿈

### 한국에서 키워나고 싶어

“영어 뿐 만 아니라 미국 문화까지 배우고 싶다”고 말한 최 양은 수줍게 전공들로 짜인 시간표를 내밀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실감이 안 난다며 걱정스런 얼굴을 하다가도 예쁜 캠퍼스에서 좋아하는 영어를 배울 생각을 하니 신난다며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지금은 한국이 좋아요. 처음에는 너무 돌아가고 싶었는데, 이제 한국이 더 익숙한 거 같아요. 가끔 한국어를 못해서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해해요. 얼른 개강해서 한국 친구들도 사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어요.”

# 설익은 설립 계획 ...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

### 미래창조소를 설립현황 점검

양윤주 기자 cyanide@khu.ac.kr

논란이 무성하던 미래창조소쿨이 윤곽을 드러냈다. 미래창조소쿨은 ‘학생들의 다양한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종합 프로젝트’로 설명된다. 이를 통해 교육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사회진출 역량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미래창조소쿨 산하에 학생지원처와 취업진로지원처가 속해 이를 지원한다. 21세기 대학혁신위원회 유정완 사무총장은 미래창조소쿨에 대해 “학생들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행정 거버넌스 개편, 미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오픈랩 공간 마련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 거버넌스 통합

‘미래창조소쿨’이라는 하나의

조직 안에 기존의 학생지원처와 취업진로지원처가 소속돼 거버넌스 통합이 이뤄진다. ‘미래창조소쿨’은 지난 1월 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학칙 개정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번에 통합된 거버넌스에 따르면 양 캠퍼스 부총장 산하에 미래창조소쿨 원장을 두게 되며, 원장 아래 양 캠퍼스 단장이 자리한다. 각각의 단장 아래에는 오픈랩 운영팀과 학생지원과, 취업지원팀 등이 소속돼 있다.

### 오픈랩 신설

오픈랩은 학생들이 자유로이 소통하고 사회진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다. 이는 총 4개의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Creative Space’에서는 창업 인큐베이팅과 창업교육, 연구를, ‘Communication Space’에서는 취업교육과 진로상담을 지원한다. ‘Activity Space’

는 학생활동과 국제교류를, ‘Share Space’는 지역사회와 글로벌 이슈 해결활동을 지원한다.

### 교육인증프로그램

미래창조소쿨의 핵심은 교육인증프로그램이다. 미래창조소쿨에서 지정한 교과들 중 해당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 시 미래창조소쿨 이수를 인증하는 문구를 졸업장에 기입해준다. 물론 세부교육과정은 계속 논의 중이다. 그러나 2016년 8월 경희 미래창조소쿨 설립 추진안에 따르면 필수교육과정 두 단계와 분야별 실천 프로그램 세 단계를 이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필수교육과정은 Core-Track 1 (Life-Planning)과 Core-Track 2 (Creative Innovation)으로 나뉜다. Core-Track 1 (Life-Planning)에서는 자기성찰과 미래 사회 분석을 위한 기초 학문인 미

학, 인지과학, 도시학 등을 다룬다. 이후 Core-Track 2 (Creative Innovation)에서는 미래의 어떤 분야든 필요한 자질인 소통과 협업 능력, 문제해결 능력,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Social Innovation, Design Thinking, Capstone Design, 독립 연구 등을 활용한다.

교육인증을 희망하는 학생은 Core-Track 1과 2 이후 분야별 실천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Gap Year와 트랙별 집중과정, 그리고 Independent Study 총 3단계로 구성된다. Gap Year에서는 Core-Track 이수 후 봉사, 여행, 인턴, 창업 등의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체험한다. 이후 두 단계에서는 취업, 창업, NGO 등으로의 진출,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 트랙으로 나뉘어져 각각의 과정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4면으로 이어짐

# 각급 학생회 재보궐 선거 3월 21일~29일 사이 진행

### 총학생회 재보궐 선거

김수진 기자 sujin\_kim@khu.ac.kr

이달 3월부터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와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 생명과학대학, 국제대학 그리고 정경대학의 재보궐 선거가 시행된다. 서울캠 총학과 정경대학은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국제캠 총학은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재보궐 선거가 진행되며 국제캠의 생명과학대학과 국제대학의 재보궐 선거는 21부터 22일까지 2일간 진행된다.

이번 재보궐 선거가 진행되는 이유는 작년 49대 총학생회 선거가 양캠퍼스 모두 선거 정족수 미달로 낙선했기 때문이다. 당시 양 캠퍼스의 총학생회는 후보자가 한명으로 출마하는 단선으로 선거가 치뤄졌다. 단선일 경우의 당선조건은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선거 정족수 2/3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하지만 양캠퍼스 모두 과반수 이상의 투표율은 넘겼지만 선거 정족수 2/3에 미달해 낙선했다.

이번 국제캠 재보궐 선거 준비기간은 3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진행되고, 후보 추천 및 등록기간은 3

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선거 운동 기간은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이며, 재보궐 투표는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시행된다. 김건우(전자전파공학 2011)학자사무국장은 “재보궐 선거는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총학생회의 연장된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일정을 세웠다”며 “새로운 총학생회가 들어서 학내 전반적인 사안의 공백이 없도록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캠 또한 마찬가지로 지난 선거에서 단선 당선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후보가 낙선했다. 서울캠의 경

우 서울캠 학생회 선거제칙 제 10장 60조에 따라 국제캠과 동일하게 3월에 재보궐 선거가 진행된다. 서울캠의 후보자 추천 및 등록은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진행되고, 3월 16일부터 24일까지 총 9일간 선거 운동이 진행된다. 투표는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진행된다

한편, 이번 재보궐 선거에는 총학 선거 뿐 아니라 단과대학 재보궐 선거가 진행된다. 국제캠의 생명과학대학과 국제대학과 서울캠의 정경대학이 이에 해당되는데, 지난 선거 당시 지원한 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 알림

## 사령

명  
〈편집장〉기호웅(의류디자인학 2012)  
〈서울뉴스팀장〉이수형(경제학 2015)  
〈국제뉴스팀장〉양윤혁(한국어학 2015)

정기자  
김은정(러시아어학 2016)  
신정인(한국어학 2016)  
안선형(프랑스어학 2016)

## 대학주보 66기 수습기자모집

모집대상 : 1, 2학년  
모집일정 : 3월 7일부터 13일까지  
접수방법 : 대학주보 홈페이지(media.khu.ac.kr/khunews) 참조



시선

사설

무(無)대표 학생사회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지금 한국사회가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중 하나는 ‘권한대행’의 득세다.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대통령을 대신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총괄하고 있고, 바로 그 탄핵심판 절차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끌어 가고 있다. 정부부처도 예외는 아니어서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장관 자리를 직무대행자가 보완하고 있다. 리더십이 공백을 맞았음에도 정당한 후임자를 세울 수 없는 난감한 처지에서 벌어진 이 광경은 사실상 국정공백 상황에 놓인 한국 사회의 현실을 보여준다.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다만 현상유지의 책임을 지닌다고 보는 견해가 대체적인 통설임을 감안할 때 현재 한국의 국가 활동은 큰 틀에서 멈춰 서 있는 셈이다.

‘양 캠퍼스 총학생회 후보의 동반 낙선’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마주한 우리학교 학생사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17년은 양 캠퍼스 총학이 없이 맞는 첫해다. 양 캠퍼스 학생사회는 총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비상대책위(비대위) 체제로 꾸려지곤 있지만, 이른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권한의 행사에 한계점을 지닐 수밖에 없다. 마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우리나라와 정당회담을 시도하는 국가가 아무 데도 없는 것처럼, 대표성이 현저히 결여된 비대위는 학생대표로 활동하는 데 제약을 받게 된다. 선출된 대표자에게 요구되는 만큼의 책임감을 ‘권한대행’이 갖고 있을지도 의문이다.

당장 각종 협상에서 학생 사회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중앙운영위원 A는 개인사유로 불참했고, 대리로 참석한 이는 발언권 없이 돌아왔다. 졸업역량강화TF에서는 학생대표가 본인이 임시직이라는 이유로 졸업역량강화 관련 협상을 미루는 일도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도 시간은 성실히 흘러 개강을 맞았고, 새내기가 입학했다. 하지만 ‘학생 리더십 공백’의 상황에서 학사제도 개편, 교육의 질적 가치 향상 등을 주문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구심점을 잃고 산산히 흩어졌을 뿐이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름대로 ‘정상(常)적이지 않은(非)’ 상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라면, 서둘러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기 위한 일에 전념하는 자세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지금 당장 전념해야 할 것은 당연히 재보궐 선거다. 당장 다음 주부터 후보자 등록기간이 시작되며 본격적인 선거기간에 돌입한다. 일상 상황에서도 수년간 단선으로 진행되고 절반 남짓의 투표율을 보이며 학생들의 큰 관심을 모으지 못했던 선거인데, 지금 같은 비상 상황에서 학생들의 관심을 모을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하는 점을 비대위는 진지하게 숙고해야 한다.

학생들이 즐겨 외치는 구호 중 하나는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진정으로 주인 된 권리를 누리는 첫 걸음은 그 뜻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대표 없는 곳에 과제도 없지만, 대표 없는 곳에 권리 또한 없음을 학생 사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주의 주제 - 학생대표 선출

학생자치에 대한 존중은 ‘절차’에서 나온다

양윤혁 기자  
yangyun0820@khu.ac.kr



대학에 입학했다. 잠깐 그 이전을 돌아켜보자. 6년, 3년, 3년. 무려 12학년을 거쳐 대학에 입학했다. 그 12년 동안 우리는 우리의 ‘반장’을 직접 뽑았다. 대학에 오니 웬 선배 한 명이 우리를 맞는다. 과 학생회장, 학교 대표다. 신입생들을 도와주는 정말 고마운 선배.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2학년이 돼서 보니 웬 다른 사람이 학생회장이 돼 있다. 들여다보니 해택이라고 ‘약간의 장학금’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학생회장인지라 나서는 사람이 없단다. 전임 학생회장이 맡길 사람을 찾아 ‘몰려줬’단다. 잠깐, 언제부터 반장을 내 허락 없이 뽑게 된 것일까?

모든 학교에서 이렇게 스리슬쩍 학생회장을 물려주는 것은 아니다.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방법은 각 학교마다 다양했다. 종이투표와 ‘카톡’ 투표, 간선제, 물려주기 등. ‘물려주기 식’ 학생회장 선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취업준비와 스펙이 중요한 시대가 됐고, 자연스럽게 학교 내에서의 유대감은 줄어들었다. 개인 시간을 투자하는 회생을 감수하면서 학교 학생회에 몸담으려는 학생도 찾기 어려워진 것이다. 하지만 ‘절차’에 대한 지적은 아직까지 유효하다.

학교 학생회장은 한 학과를 대표한다. 새터, MT

등 학과 행사를 기획하고, 학대운영위원회나 전학대회와 같은 ‘의결기구’에도 나와 학과를 대표해 참석한다. 집행부와 함께 학과를 위해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노동도 한다. 그래도 다시 생각해보자. 귀찮은 일을 해준다는 이유로 ‘우리가 뽑은 대표’라는 정당성을 버려도 괜찮은 것일지. ‘지원자가 없다는 토로’에 앞서 공식적인 입후보나 투표절차는 존재했는지.

‘일개’ 학과 대표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학생 대표의 연행으로 한 학과의 이미지가 결정돼버린 경우도 있었다. 우리 신문에서 보도했던 ‘러시아어학과 학생회장’이 게시한 페이스북 글 하나는, 그저 학과의 일원이라고 하기에는 학과 전체에 끼친 영향력이 너무도 컸다. ‘정당성’이 필요한 이유다. 대표성을 띄지 않은 대표가 실추한 학과의 명에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취재 과정에서 많은 단과대학 및 학과 학생회장들과 접촉했고, 다양한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노고와 회생에 비해 턱없이 적은 장학금에 대해 토로했다. 대부분 학생회장을 맡는 3, 4학년은 취업준비만으로도 벅차다. 다른 한편으로 학생회에서 일을 하고 싶었지만 공채가 이뤄지지 않아 매번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는 아쉬움을 밝히는 사람도 있었다. 이러한 사람이 소수라고 할지라도 학생회의 대표성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학생들 사이의 ‘학생회에 대한 존중’,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 그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마땅하겠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심이 돼야 할 것은 ‘공정한 절차’를 만들 학생회 자체의 노력이다.

편집장으로  
첫 번째 신문을 펴내며

세시봉

기호웅 (편집장)



개강이라니 믿겨지지가 않는다. 방학이었지만 매일같이 학교를 나오고 서울캠과 국제캠을 오가면서 어느 때 보다도 바쁜 방학을 보냈다. 주말을 제외한 주중에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기사를 쓰고 회의를 했다. 학과공부가 아니면 편집실에 자주 찾아와 시간을 보냈을 뿐인데, 어느덧 한 조직의 책임자인 편집장이 되어 버렸고 하루하루를 두려움과 부담감에 살고 있다.

매일같이 회의를 진행하고 언론과 글쓰기에 대해 공부를 하지만 그중에서도 기대하는 일정은 아무래도 다른 학교 신문사들을 만나는 서울권대학언론인협의회(서언회) 회의일 것이다. 이름 그대로 서울권에 있는 26개 대학 신문사들의 집합인 서언회는 본래 서로 만나 신세한탄을 하거나 각 학교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었지만, 올해에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을 만나는 기자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각 신문사의 최고 책임자들답게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었고 하나같이 멋있는 사람들이다.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느꼈던 여러 감정이 있지만 가장 공감이 됐던 부분은 신문에 대한 애정이었다.

사실 신문사에서 일하는 우리 모두는 인정하고 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신문을 보지 않는다. 뉴스를 보거나 듣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종이신문을 통해서 소식을 접하지 않는다. 요즘은 TV보다도 PC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서 훨씬 더 자주 뉴스를 접하고 있다. 우리 신문사도 오래전부터 이러한 부분에 문제의식을 갖고 ‘모바일플러스’를 기조로 디지털매체로의 전환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신문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여러 이유 중 전통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아직 신문에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에서 느껴지는 회색의 종이와 잉크의 냄새는 오묘하게 향수를 자극하고, 가벼운 무게지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기자와 관계자들의 노력이 지면을 통해 느껴진다.

하지만 더 이상 독자들에게 이러한 감성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결할 수만은 없다. 서언회를 통해서 느꼈던 또 다른 공감대는 각 신문사들이 학생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벌이는 치열한 노력들이었다. 우리가 수많은 노력을 통해 기사와 신문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독자들이 봐주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3월 6일에 발행될 신문을 위해 필자는 4일 금요일 새벽 밤새 조판작업을 진행하며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모두가 피로에 지쳐 쓰러지기 일보직전이지만 모두가 하나같이 갖고 있는 마음은 신문이 독자들에게 잘 읽히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2017년 1학기 개강호는 기자가 진행하는 첫 번째 신문이다 보니 갖는 부담감이 너무나도 크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신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눈물 그리고 땀의 결과물이다. 2017년에도 우리 대학주보를 기대해 달라. 이 건 구결이 아닌 적극적인 매력어필이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김혜경 | 편집장 기호웅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래21회)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희1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현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장기자랑과 술게임 여전한 새터  
이상한 상황으로 인식하길

미디어 여론동향 2017. 2. 22~3. 5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국제캠퍼스(국제캠) 취업진로지원처(취진처)가 지난 13일 학생회관 2층 바로처리실 위치로 이전했다.(국제캠 학생회관 1층에 미래창조소쿨 공간 들어설 예정/대학주보 온라인, 2017.2.22) 기존 공간은 미래창조소쿨 관련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취진처 측은 “해당 공간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논의 중”이라며 “4월을 목표로, 늦어도 연말 안으로 방향성을 잡아 알리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페이스북 대나무숲에선 새터의 문제점을 지적한 글로 들쭉였다. ‘얼마 전 새터를 다녀온 새내기입니다’(#경희소\_20246, 2017.2.23)의 글쓴이는 ‘원하지도 않는 장기자랑과 술게임 중에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는 성희롱 때문에 힘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글쓴이는 ‘사전 설문조사에서도 장기자랑 강제로 하지 말자는 의견이 1위를 했는데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고 처음 보는 남자 무릎 위에서 술을 마시는 게 그냥 장난으로 인식되는 상황이 이상했다’고 썼다. 218개의 ‘좋아요’를 받은 이 글에 학생들은 ‘함의되지 않은 술게임 러브샷은 명백한 성폭력이다’, ‘강제성이 있었다면 총어나 해당 학생회에 문제를 제기해 보라’, ‘어느 과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경희인으로서 부끄럽다’ 등의 의견을 나눴다.

매 학기 개강마다 볼 수 있는 종강을 바라는 글 역시 인기 있었다. ‘내일 개강인데 벌써 종강하고 싶다’(#경희소\_20338, 2017.3.2)는 글은 417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학생들은 ‘벌써 힘들다’, ‘등교하기 전에 하교하고 싶다’, ‘개강의 행복함을 깨닫기 위해 입대합시다’ 등의 의견을 나눴다.

서울캠 대운동장 행복기숙사가 오는 4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학생 926명 수용할 ‘행복기숙사’ 4월 완공/대학 홈페이지 Focus, 2017.2.15) 지난 2012년 정부의 ‘대학생 기숙사 건립사업’에 선정된 후 오는 4월 완공될 대운동장 행복기숙사는 지하2층~지상10층 규모로

2인실 458실, 장애인용 10실이 배치돼 926명을 수용할 수 있다. 객실 외에도 대운동장에 면한 야외 공간, 북카페, 체력단련실, 식당, 매점 등이 배치된다. 기숙사비는 2인실 월 19만 9천원으로 책정됐다. 장기 저리의 공공기금을 활용했기에 기존 사립대 민자 기숙사비용인 월 30~40만 원에 비해 저렴한 가격이 가능했다. 대운동장 행복기숙사 완공에 따라 서울캠 기숙사 수용률은 현재 10.5%(1,690명)에서 16.2%(2,616명)으로 상승하게 된다.

2017학년도 1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가 지난달 20일 열렸다.(‘명명사적 격변기, 대학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대학 홈페이지 Focus, 2017.3.2) 21세기 대학의 학사제도가 담어나야 할 새로운 비전과 과제를 논의했다. 조인원 총장은 인사말에서 “대학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학생들이 소망하는 대학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우리 대학이 사회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리학교는 올해 연구와 교육의 질 향상에 집중한다. 연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융합형 교육을 본격화한다. 학생의 사회진출을 위한 미래창조소쿨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경희-삼성 산학협력관 착공을 시작으로 산학연을 선도할 계획이다.



# ‘국제’ 선거 세칙 개정 … 명부확인 단위, ‘선거구’→‘투표소’

## 학대운영위원회 의결 결과

김수진 기자 sujin\_kim14@khu.ac.kr

【국제】‘2017년 제1차 학대운영위원회(학운위)’에서 선거 세칙 개정에 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개정안’은 크게 네 가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의 업무 및 권한 ▲참관인의 역할과 권한 ▲투표함 봉인 규정 ▲개표 전 오차율 ▲선관위 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 익명성 글 제제 방안 마련돼

개정안의 첫 번째로, 선거 시행세칙 2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을 규정한 13조가 강화됐다. 추가된 중선관위의 업무 및 권한은 ‘후보 측이 익명의 글에 대한 규제를 중선관위에 요청할 시, 세칙에 의거하여 위반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공정선거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2016학년도 49대 총학생회 선거 당시 익명의 학내 커뮤니티에서 불거졌던 특정 후보에 대한 거짓 정보와 비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시 중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학운위에서는 “익명의 글로 인해 특정 후보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중선관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하는 것이 목적이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김건우(전자전과 2011) 학자사무국장은 “중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글의 수정이나 삭제 등 직접적인 제지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중선관위가 익명의 글에 관해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방식상의 문제도 복잡하며 어떠한 제지까지가 적당한지 기준으로 모호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내를 통해 중선관위가 다양한 의견들을 항시 지켜보고 있음을 구성원들에게 상기시킨다면 무분별한 비방성 글들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번 개정 내용의 의미를 밝혔다.

다음으로 7장 ‘투표’에서는 36조 ‘선거구’, 37조 ‘투표참관인’, 39조 ‘참관인 규제사항’에서 총 4가지 항이 변경됐고, 46조 ‘투표함’에서 2항의 내용이 추가 및 변경됐다.

기존의 36조(선거구), ‘독립적으로 학생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단위로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이 있는 건물과 활동하는 장소를 의미한다’는 조항은 ‘독립적으로 학생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단위를 의미한다’로 간

〈국제캠 선거 세칙 주요 개정 내용〉	
13조(업무 및 권한)	⑩ 후보 측이 익명의 글에 대한 규제를 중선관위에 요청할 시, 세칙에 의거하여 위반사항이라고 판단 될 경우 공정선거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다.
36조(선거구)	• 독립적으로 학생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단위로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이 있는 건물과 활동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 독립적으로 학생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단위를 의미한다.
37조(투표참관인)	③ 참관인은 각 후보를 대신하여 해당 투표소에 배치되어 투표진행을 참관·감독하며 투표 진행에 대하여 문제점 발견 시 이의제기를 중선관위에 할 수 있다.  ③ 참관인은 각 후보를 대신하여 해당 투표소에 배치되며, 해당 시간에 대하여 투표 진행을 참관, 감독하고, 투표 진행과정과 추후에 발견한 문제점에 대한 이의제기를 선관위에 할 수 있다.
39조(참관인 규제사항)	② 참관인은 항시 투표소에 있어야 한다. ③ 참관인은 선거권자의 투표방법을 안내할 수 있으나 투표에 대해 간섭을 할 수 없다. ⑤ 참관인은 투표당일 9:00까지 투표장에 도착해야 한다. 단, 참관인이 늦을 경우라도 해당 선관위장이 있다면 정해진 투표시간에 투표를 시작해야 한다.  ② 참관인은 해당 투표소에 배치되는 시간에 대해 선관위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배치된 후 기재되는 첫 투표자와 마지막 투표자에 대하여 선거인 명부의 참관인 확인란에 서명한다 ③ 참관인은 선거권자의 투표방법을 안내할 수 있고, 투표소에서의 투표 독려에 한하여 투표종용행위를 할 수 있다. ⑤ 참관인이 없는 경우라도 해당 선관위장이 있다면, 정해진 투표시간에 투표를 시작해야 한다.

소화 됐다. 이는 기존 조항의 ‘일반적’이라는 의미가 모호했기 때문이다.

### 투표참관인 역할 ‘축소’ 논란될 듯

37조 ‘투표참관인’에 관한 규정에서는 참관인의 역할과 권한이 이전 조항들에 명시된 것 보다 축소됐다. 우선 기존의 투표 참관인에 관한 규정 37조 3항, ‘참관인은 각 후보를 대신하여 해당 투표소에 배치되어 투표 진행에 대하여 문제점 발견 시 이의제기를 중선관위에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참관인은 각 후보를 대신하여 해당 투표소에 배치되며 해당 시간에 대하여 투표 진행을 참관, 감독하고, 투표 진행과정과 추후에 발견한 문제점에 대한 이의제기를 선관위에 할 수 있다’로 변경됐다.

다음으로 변경된 조항은 참관인 관련사항에 관한 39조 2항이다. 이는 ‘개표에 참관한 참관인은 항시 투표소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참관인은 해당 투표소에 배치되는 시간에 대해 선관위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배치된 후 기재되는 첫 투표자와 마지막 투표자에 대해 선거인 명부의 확인란에 서명한다’는 규정으로 변경됐다.

투표 참관인 관련사항 39조 5항의 ‘참관

인은 투표 당일 9:00 까지 투표장에 도착해야 하며 참관인이 늦을 경우 해당 선관위장이 있다면 정해진 투표시간에 투표를 시작해야 한다’는 대목은 개정 후 ‘참관인이 없는 경우라도 해당 선관위장이 있다면 정해진 투표시간에 투표를 시작해야 한다’로 변경됐다.

하지만 참관인의 역할을 축소한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인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정치외교학과 윤성이 교수는 “투표와 개표 시 참관인의 감독과 감시의 역할을 대체할 감시기구가 마련되지 않은 채 참관인의 역할을 축소했다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또 ‘참관인은 선거권자의 투표방법을 안내할 수 있는 있으나 투표에 대해 간섭을 할 수 없다’라는 39조 3항은 ‘투표소에서의 투표 독려에 한하여 투표종용행위가 가능하다’고 개정됐다.

이전까지의 선거에서는 개표 방식에 관한 명확한 세칙의 부재로 관습과 관행에 근거한 방식으로 개표가 진행되며 개표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뒤따랐다. 이에 우리 신문에서도 선거세칙의 모호함을 지적하는 기사를 낸 바 있다(구명

쫄린 선거시행세칙 … 선거 운영에 혼란 키워/대학주보 제 1615호, 2016.12.5.). 당시 제기되었던 투표함 봉인 미비 등의 문제에 대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46조 ‘투표함’ 2항 ‘투표 마감 후 이송’ 대목에 대한 개정으로 보완했다. 나 목의 투표함 봉인과 관련한 한 가지 항목과 바 목의 참관인과 관련한 한 가지 항목이 추가됐으며 선거인명부와 같은 선거 도구의 관리와 관련된 2가지 항목은 변경된 것이다.

### 선거인 명부 오차율 5%로 변경

기존 2항 ‘투표 마감 후 이송’ 나 목의 ‘투표함은 해당 선관위장과 참관인의 입회 하에 선관위장과 참관인이 날인한 후 중선관위 도장을 찍고 봉합한다’는 투표함 봉인의 명확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4가지 세부 세칙들을 ‘투표함 봉인’이라는 큰 항목으로 포괄하여 추가했다. 또한 참관인이 없을 경우 후보 측 동의하에 선관위장 단독으로 투표 마감 후 이송과 관련된 사항을 진행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다. 변경된 다 목에서는 기재한 선거인명부는 ‘투표함과 동일하게 이중 봉인’하며 라 목 역시 선거인명부와 기타 선거도구들은 중선관위에서 제

공한 전용 보관함을 이용해 ‘투표함과 동일하게 이중 봉인’하는 규정으로 변경됐다.

8장 개표 전 오차 확인 절차에 관한 규정 51조에서는 단과대학의 개표 전 명부 확인 절차에서의 모호함과 오차율에 관한 수치가 개정됐다. 기존 투표 51조 2항의 각 ‘선거구 별’로 명부 확인 절차가 이뤄졌던 사항은 ‘투표소 별’로 명부 확인 절차가 이뤄지도록 변경됐다. 이는 한 곳의 투표소만이 라도 오차가 발생할 시에는 해당 선거구 안의 오차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투표소도 모두 재투표를 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투표 51조 3항에 기재된 총학생회와 특별자치기구 선거의 개표 전 명부 확인의 오차율 수치가 기존 ‘선거구 별’, ‘3%’에서 각 ‘투표소 별’, ‘5%’로 변경됐다. 김 국장은 이에 대해 “3%의 오차율에 근거하면 대선거구의 500명이 투표한 투표소에서는 15명이, 소선거구의 100명이 투표한 투표소에서는 3명이 최대 오차 범위”라며 “소선거구의 3명의 오차는 사람이 충분히 실수로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수치임을 고려해 이를 변경했다”며 소선거구와 대선거구의 차이점을 근거로 설명했다. 하지만 소선거구와 대선거구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전체 선거 비율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3%의 오차율로 이전과 동일하게 맞췄다.

### ‘선관위 교육’ 세칙도 추가

‘선관위 교육에 관한 세칙’도 새롭게 추가됐다. 이전 선거의 미흡함은 세칙 자체의 미비점 뿐만 아니라 이를 명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실수가 있었던 선관위에게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 자정보대학에서는 선관위원들이 절차 숙지하지 못해 개표가 늦어졌고, 최종 개표 결과를 기록한 문서를 유실하는 일도 있었다. 이와 관련된 세칙들이 2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교육에 관한 17조로 추가되며 중선관위와 선관위 선출이후 교육 기간과 교육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명시됐다. 만약 선관위 위원들이 선관위 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선거 전 추가 교육을 받는 세칙도 함께 마련됐다. 김 학자사무국장은 “이를 통해 선관위가 선거 도중 미흡하거나 실수가 잦았던 일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심의된 전체 개정안은 전체 학운위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모두 의결됐다.

2017-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안내

1.신청대상 : 신입생,재입학생,편입생,복학생

※ 1차신청을 놓친 재학생은 재학중 1회에 한해 “재학생 신청기간미준수자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 후 지원

－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심사 단계에서 탈락(사유: 신청기간 미준수) → “재학생 신청기간미준수자구제신청서”를 공인인증서로 제출 → 재심사 후 국가장학금 지원

2. 2차 학생 신청기간

－ 2017. 02. 27.(월) 09:00 ~ 03. 09.(목) 18:00

※ 주말 ·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마감일제외)

3.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17. 02. 27.(월) 09:00 ~ 03. 13.(월) 18:00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5. 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한국장학재단

한국어·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외국어강좌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기간

· 정규 외국어강좌 기간(6주) : 2017. 03. 13.(월) ~ 04. 21.(금) · 정규 등록기간 : 2017. 02. 27.(월) ~ 2017. 03. 10.(금)

●문의

Tel. 02) 961-0081 ~ 2 http://www.iae.ac.kr

●강의 일정

영어회화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30~19:50 (월, 수, 목)					
	레벨	Basic / Beginning / Intermediate / High Intermediate(오전반) / Advanced							
수강료		150,000원							
영어 레벨업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5:00~17:00 (금)	오후반 18:00~20:00 (화)	오후반 18:30~20:00 (화)				
	레벨	Ted Talk	Talk Like Ted	Academic Writing	Screen English	Book Club Ted Talk			
수강료		150,000원	120,000원		90,000원				
일본어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오후반 18:00~20:00 (화, 목)				
	레벨	초급1 / 초급2 / 중급1 / 중급2 / 고급	초급1 / 초급2 / 고급		중급1 / 중급2				
수강료		150,000원							
중국어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오후반 18:00~20:00 (화, 목)				
	레벨	초급1 / 초급2 / 초급3 / 중급1 / 중급2 / 고급	초급1 / 초급3 / 중급2		초급2 / 중급1 / 고급				
수강료		150,000원							
스페인어	시간	오전반(화, 목) 07:45~08:45	오전반(월, 수) 07:45~08:45	오후반 17:30~19:00(화, 목)	오후반 17:30~19:00(월, 수)	오후반 19:00~20:30 (화, 목)			
	레벨	초급1	초급2	초급1	초급2	중급1			
수강료		90,000원		120,000원					
프랑스어	시간	오후반 16:00~18:00(월, 수)   오후반 16:00~18:00(화, 목)							
	레벨	초급1							
수강료		150,000원							
독일어	시간	오후반 17:30~18:50 (월, 수)							
	레벨	초급1							
수강료		120,000원							
베트남어	시간	오후반 18:00~19:20 (월, 수)							
	레벨	초급1							
수강료		120,000원							
이탈리아어	시간	오후반 18:00~20:00 (월, 수)							
	레벨	초급1							
수강료		150,000원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서울)



보도

▶1면에서 이어짐

미래창조스쿨, 기획부터 험난한 여정

하지만 미래창조스쿨은 기획단계부터 난항을 겪어왔다. 그 시작점은 작년 8월 외부 언론에 미래창조스쿨 설립이 보도된 것이었다. 외부 언론으로부터 사업소식을 접한 구성원들은 즉시 반발에 나섰다. 특히 총학생회(총학)는 학생들이 대학 측으로부터 미래창조스쿨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구성원들은 모르는’ 미래창조스쿨 ‘9월 출범? 도대체 “뭣이 중한디?”’라는 제목의 공개질의문을 올리며 대학본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스쿨의 기획을 맡은 21세기대학혁신위원회(혁신위)에서는 사과문을 발표하며 ‘학생들과의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2016년 9월 출범 계획을 고수했다.

작년 9월, 서울캠퍼스 교수의회 또한 ‘존경하는 교수님께’라는 제목의 미래창조스쿨 반대 대자보를 게시했다. 교수의회는 미래창조스쿨의 즉시 중단을 요구하며 “미래창조스쿨은 답답한 현실을 호도하기 위한 기만전술의 일종”이라며 “공간·예산·교수진 어느 것 하나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어떻게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정완 사무총장은 기존 교과를 활용한 종합적 재구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 후마니타스칼리지의 배분·자유이수 교과와 취업스쿨, 각 단과대·학과에 설치된 전공·취업 관련 교과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론의 계속된 비판 때문인지, 설립계획은 차일피일 미뤄지기 시작했다.

미래창조스쿨, 0번 학기도 가능성 학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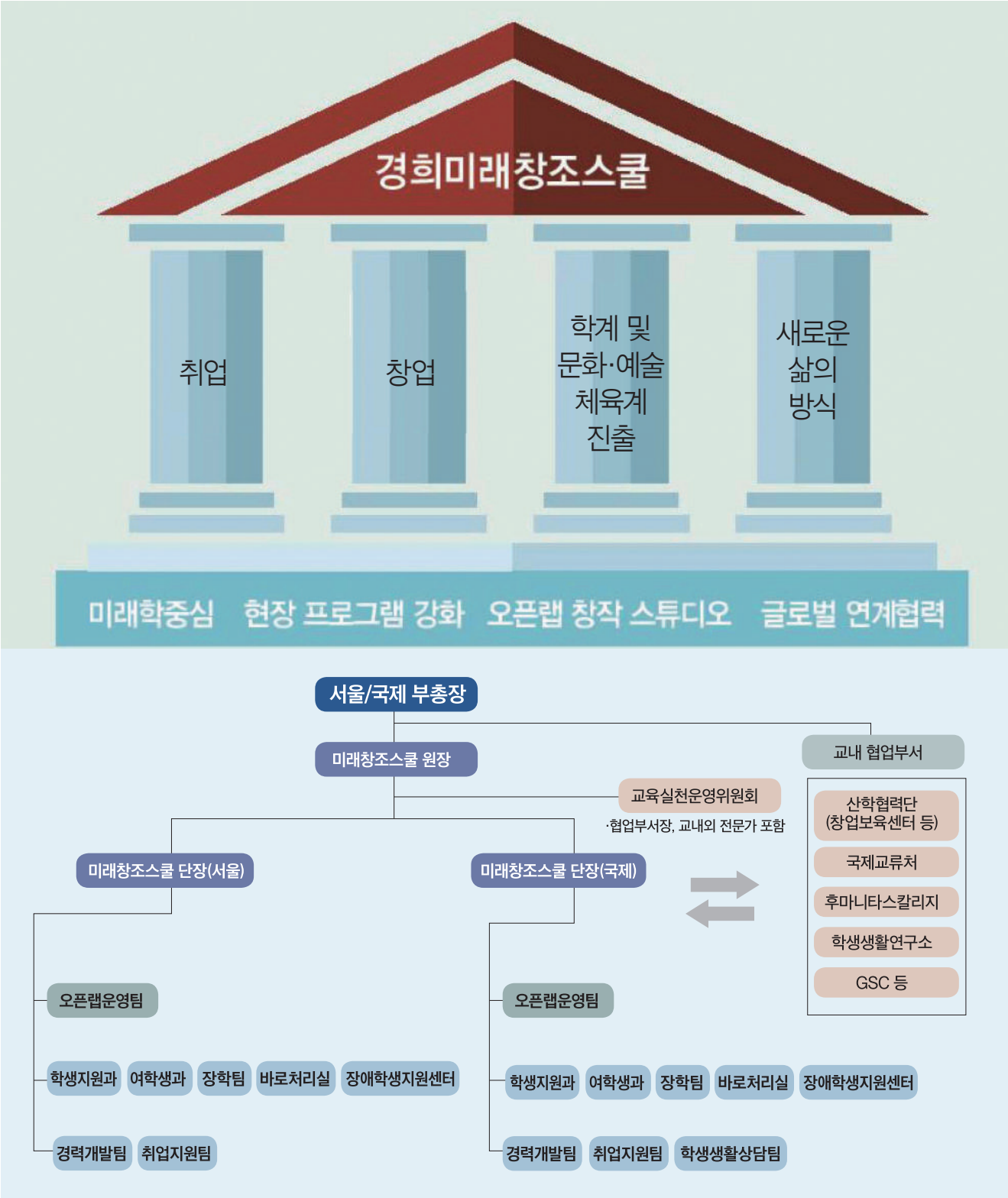
‘미래창조스쿨은 오는 9월 출범식을 시작으로 2학기부터 오픈랩을, 내년 3월에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목표’

- 지난해 8월 공개된 설립추진안 “공간·예산·교수진 어느 것 하나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어떻게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는 건지 의문”

- 지난해 9월 교수의회 “2017학년도 1학기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2학기에 기획하고 준비하면 2017학년도 1학기에는 인증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 즉 학점 수, 교과목 군 등의 제시가 충분히 가능하다”

- 지난해 9월 혁신위원회 유정완 사무총장 “1학기 시행 후 수정과 보완을 거쳐 2학기에는 완전히 시행되는 것이 목표”

- 지난해 12월 혁신위원회 유정완 사무총장



학생지원처·취업진로지원처...

통합운영 통해 효율성 기대

의사 소통·차별화 문제는 아쉬워

지속적인 해결 필요할 듯

그러나 현재 미래창조스쿨은 한 차례 더 미뤄질 상황에 직면했다. ‘교육인증프로그램’은 미래창조스쿨의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7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어떠한 것도 공지된 바 없다. 따라서 이번 학기엔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더 나은 미래창조스쿨을 만들기 위해 이를 미뤘다는 입장이다. 미래정책원(미정원) 권오병원장은 “애초에 없었던 조직을 새로 만드는 만큼 조직의 편제 개편과 학칙도 개정해야 하는 등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며 “작년 하반기에 미래창조스쿨 설립위원

회를 결성하고 조직을 새로 만드는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21세기 대학혁신위원회 유정완 사무총장은 “보다 나은 미래창조스쿨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성원의견 반영 안 된 부분 우려

미래창조스쿨의 설립과정에 있어 전반적인 문제로 부상되는 것이 바로 ‘학내 구성원과의 소통 미비’다. 당초 계획은 학생기

획단을 통해 미래창조스쿨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여 그 설립과정에 학내 구성원과 소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학생기획단을 통한 첫 소통창구는 닫혔고, 그 이후에도 소통에 대한 대체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미정원 권오병 원장은 “미래창조스쿨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조만간 반드시 학생과 소통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미래창조스쿨이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전에 운영TF를 구성해 학생위원을 3~4명 배치하여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래정책원에 따르면 추후 미래창조스쿨에 대한 설문조사는 올해 3월 둘째 주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며,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현재 구성된 미래창조스쿨 운영TF에는 총학생회 이정이(아동가족학 2012) 비상대책위원장과 정경대학 학생회 이동진(경제학 2012) 권한대행이 소통협의체 소속 학생위원으로 발탁되어 있는 상태이다.

기존 강의와의 차별화가 관건

교육인증프로그램은 이미 개설된 강좌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학생과 혁신위의 입장차가 존재한다. 학생측에서는 기존 교양 제도와 유의미한 차이를 내기 힘들 것이라는 입장이며, 혁신위 측은 기존 교양 강의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경대학에 재학 중인 A 군은 “기존의 강의를 이용하면 차별점이 없어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며 “기존 후마니타스 필수교양제도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미래정책위원장은 “지정되는 강의들의 강의운영이 이론중심이라면 비교과 활동추가를 권고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되도록 좋은 효과를 얻게 하도록 할 것”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운영TF에서 논의될 예정”고 밝혔다.

한편, 미래창조스쿨 시행으로 수강신청 문제의 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경대학 재학 중인 B 군은 “강의 수가 증가되지 않고 미래창조스쿨이 시행될 경우 교육인증프로그램으로 지정된 강의로 학생들이 몰리게 될 것이다. 결국 수강신청을 잘한 학생만 인증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미래정책위원장과 유 사무총장은 “수강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며 “강의 수 자체를 늘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분반과 같은 기존 강의를 활용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2월 마지막 주(2.27 - 3.3)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1.기업체채용행사및 취업특강

행사명	일시	장소	비고
BGF리테일 채용설명회	3.3(금) 15:00~17:30	청운관 8117호	
BGF리테일 채용상담	3.3(금) 10:00~14:00	청운관 1층 상담실	

※ 위임정은 기업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사전신청필요(행사당일까지 가능)

중합정보시스템 - 인터넷 신청 - 연수 신청 - 해당 설명회 신청하기 클릭 - 완료

※ 신청후 '합격여부'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 사전신청 학생 및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서는 당일 해당 장소 출입문 쪽에 비치함.

• 출석협조전발급: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회장 입구)에서 발급 및 배부

• 기타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행사 카렌다 참고

2.취업진로지도맞춤 컨설팅 (취업상담)

• 대상: 본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상담 내용: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면접스킬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상담유형	일시	담당 컨설턴트	장소	신청방법
개인	월요일 ~ 금요일 (전문 컨설턴트)	이연의, 오신종	오바스를 354호, 356호	중합정보시스템 '수업/성적/상담' 신청
		박언경	제1법학관 107-2호	
		홍상기	청운관 6번 상담실	

• 상담신청자 의무: 취업준비도 겸사(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하단 에 위치) 상담 전 · 후 각1회(총 2회) 필수

• 주의사항

- 상담당일 취소 불가(상담당일 일 전까지 가능, 취소 시 전화 연락)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씩 출력하여 지참(필수)

3.스미스코리아현장면접사전신청 안내

기업명	신청기간	대상	일시	장소	지원방법
스미스코리아	~3.13(월)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참고	3.21(화) 10: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참고

• 모집요강 및 현장면접신청에 관한 안내는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 공지사항 참고

• 스미스코리아 채용에 대한 기타문의: 이메일 bbce@nsmih.co.kr 또는 02-554-4466(담당자: 배연수 과장)로 문의바람

지세한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바주세요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job1.khu.ac.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hujob      연락처 02-961-0167 ~ 8, job@khu.ac.kr      위치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2017학년도 1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 및 실적등록 안내

2017학년도 1학기 자유선택과목 "사회봉사1,2,3"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가능 학점

가. 성적부여 방식: P/F(2014학년도 부터 P/F 모두 성적표에 기재)

나. 최대 취득가능학점: 학기당 1학점, 총 2학점(단, 2007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최대 3학점)

●사회봉사 학점 취득 변경 내용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항목	2012~2학기 이전	2013~1학기부터
취득요건	온라인캠퍼스 이수 후 봉사활동 32시간으로 학점 인정	재·휴학에 관계없이 입학 이후 실시한 봉사활동 32시간으로 학점 인정
인정기준	국공립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사회봉사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회봉사시간으로 인정 불가능 ① 교외봉사: 1365 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서울동행프로젝트(http://donghaeng.seoul.kr),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www.vms.or.kr)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② 교내봉사: 교내부서 및 단과대학에서 주관하는 봉사(단, 취업진로지원처와 사전협의 되어야 함)를 실시한 경우 ③ 헌혈: 입학 후 실시한 본인의 헌혈증서 원본, 사본 및 VMS 헌혈기록을 제출하는 경우

문의: 취업진로지원처 (031-201-3061)

●사회봉사 학점 인정 신청 및 실적등록 신청

구분	교과목 이수 (학점인정신청)	실적등록
대상	2017-1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신청 학생	전체 재학생 및 휴학생
서류 제출기간	2017년 5월 17일(수) ~ 2017년 6월 7일(수) 17:00까지	*위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일체 서류를 받지 않음
제출서류	1. 학점인정신청서	1. 실적등록 신청서
	2. 봉사활동확인서 원본 및 사본	
	3. 소감문	-

- 제출서류양식은 http://service.khu.ac.kr/ 접속 후 정보마당-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회봉사 관련 상세사항은 공식홈페이지 http://www.khu.ac.kr - [공지사항] - [일반]에서 반드시 확인

●기타 세부사항

가. 봉사시간은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한다.(같은 날 실시한 헌혈+봉사활동 실적 제출할 경우도 적용)

나. 헌혈기록 제출을 통한 봉사시간 인정은 입학 이후 실시한 헌혈에 한하여, 교과목 이수에 요구되는 32시간 중 총 16시간까지 인정 가능하며 연도별 인정시간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2006. 2.28 이전	2006. 3. 1 ~ 2011. 2.28	2011. 3. 1 이후
헌혈중 1당 인정시간	15	8	4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 SPACE21 사업 1단계 종합체육관부터 순차적으로 완공



▲ 서울캠 행복기숙사



▲ 서울캠 간호과학대학·이과대학·한 의과대학이 사용할 2개동 건물



▲ 국제캠 종합체육관

## 캠퍼스 종합개발계획 총정리

설치연 기자 jy0622@khu.ac.kr

#. 2015년 시작된 SPACE21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007년 SPACE21 사업이 구상된 이래로 10년 만이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SPACE21 사업이 첫 번째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우리 신문은 SPACE21 사업의 진행과정과 이슈를 되짚어 봤다.

SPACE21 사업의 시작은 지난 2007년 ‘캠퍼스마스터플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캠퍼스마스터플랜’은 우리학교를 연구중심, 특성화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3단계로 나눠 계획됐다.

## 과거의 캠퍼스 마스터플랜 오늘의 SPACE21 사업

당시 캠퍼스마스터플랜은 서울캠퍼스(서울캠)에 5개 단과대학관과 중앙도서관을 신축하고 2020년까지 산학협력센터를 포함한 다양한 시설물을 새로 짓는 안으로 기획되었다. 국제캠퍼스(국제캠)에는 4개의 단과대학관을 재정비하고 목련관, 종합체육관의 2개동을 신축하는 대규모의 캠퍼스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도중에 구성원간의 소통문제 등으로 공사가 미뤄졌고, 2010년에 착공식을 가졌으나 양 캠퍼스의 캠퍼스종합개발계획은 2011년 재정문제로 사업이 대폭 축소되기에 이른다.

## 2011년 재정악화의 영향으로 캠퍼스종합개발계획 대폭 축소

2013년 8월 ‘SPACE21 사업단’은 서울시청에 서울캠 캠퍼스종합개발에 대한 ‘세부 시설조성계획’을 접수하고는, 서울캠 조감도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은 사라진 노천극장을 재정비해 잔디광장을 건설하고, 잔디광장 동쪽 노천극장의 소라관이 위치하던 곳에 붉은색 벽돌로 원형 모양의 글로벌관을 건축할 계획이었다. 또한 소라관은 대운동장 남쪽에 새로 지을 계획이었다. 이외에도 한 의과대학, 이과대학, 간호과학대학이 사용할 쌍둥이 건물 2개동을 농구코트 부근 부지에 건설하며 멀티동을 선승문 부근에, 신축 기숙사를 대운동장 스탠드 부근에 건설할 예정이었다. 이는 2014년 7월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숙사 인·허가 문제로 착공은 7월에 진행되지 못하고 공사는 차일피일 미뤄졌다. 당시 행복기숙사 건설이 예정되자 주민들이 동대문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동대문구청은 주민과의 협의를 강조하며 기숙사에 대한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는 동대문구청의 인·허가를 촉구하는 행정심판을 접수했고, 그 여파로 서울캠의 SPACE21 사업은 다음해로 미뤄졌다.

## 서울캠, 오랜 난관 끝에 2015년 착공

한 차례의 고비를 넘기고 SPACE21 사업 첫 계획이 나온 지 8년만인 2015년, 대학본부가 사업비 예산안을 경희 이사회

에서 승인받으면서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예고했다. 하지만 재정문제는 다시 SPACE21 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서울캠 총학생회가 학교의 자금마련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다.

당시 대학본부 측이 양 캠퍼스 SPACE21 사업비로 책정한 금액은 총 1,750억 원으로 서울캠에 800억 원을, 국제캠에 950억 원을 배정했다. 이중 국제캠 종합체육관 건설비용 약 225억 원은 이미 확보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 밖의 사업비는 기금과 고정자산 매각수입을 통해 얻은 94억 원 외에, 기채 신청을 통해 500억 원을 확보하고 추가 운영수익 등으로 채운다는 학교 측의 계획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캠 총학은 학교 측의 자금마련 계획이 ‘불충분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공개 질의서를 게재하고 문제제기에 나섰다. 학교의 대출 상환 계획이 불확실하고 구성원간과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결국 학교와 총학이 ‘SPACE21 특별기구’를 만들기로 하고, 기채 상환에 대해서 특별기구에서 1차적으로 논의하겠다는 항목을 포함한 7가지 항목에 대해 협의를 거친 후 이 문제는 마무리 됐다.

## 우여곡절을 넘어 지어진 종합체육관

서울캠에 비해 사업 시작이 늦어진 국제캠은 2013년 12월에 캠퍼스 입면도를 공개하며 SPACE21 사업의 첫발을 내딛었다. 그 당시 공개된 입면도에 따르면, 전자정보대 옆 야구장 부지에 약 7,000평 부지의 제

2 공학대학을 신설, 생명과학대 맞은편에 2,800평 규모의 종합체육관을 건설하고 외국어대학 1,000평을 증축, 리모델링할 계획이었다.

이는 구릉지를 깎아내고 4,000평 규모의 종합체육관을 건설하겠다는 2010년 계획안보다 축소된 사업 규모였다. 국제캠의 SPACE21 사업이 축소된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문제였다. 최초 SPACE21 사업 계획 단계인 2010년에는 사업비 1,795억 원을 책정했었다. 하지만, 2011년 양 캠퍼스의 사업비가 대폭 축소된 후, 2013년 사업비가 914억으로 책정되며 기존 계획보다 축소된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2017학년도 1학기에 이르러, 이런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SPACE21의 1단계 사업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서울캠 대운동장부근의 행복기숙사를 비롯해 간호과학대학·이과대학·한 의과대학이 사용할 건물 2개동, 그리고 국제캠의 종합체육관이 올해 상반기 안에 완공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캠의 행복기숙사와 국제캠의 종합체육관은 4월 내에 완공 될 예정이다.

## 행복기숙사 수용률 5.7% 상승

행복기숙사는 지하 2층, 지상 10층이며 2인실 458실, 장애인용 10실이 배치돼 총 926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로써 서울캠 기숙사 수용률이 10.5%에서 16.2%로 상승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12년 6월, 정부의 ‘대학생 기숙사 건립사업’에 선정돼 공공기금을 지원받아 입사하는 학생들은 2인실

기준 월 19만 9천 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기숙사비를 낸다.

## 쌍둥이 건물, 강의환경 개선 기대

간호과학대학·이과대학·한 의과대학이 사용할 2개동 건물은 쌍둥이 건물로 지하 3층, 지상 10층의 13,979평 규모이다. 1개동은 한 의대 단독으로 사용하고 1개 동은 간호대학과 이과대학이 함께 사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간호대학이 강의실 9실, 이과대학이 강의실 3실, 한 의과대학이 강의실 7실을 사용하였으나 건물이 신축되면 각각 12실, 12실, 11실로 강의실 수가 늘어나게 되어 강의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종합체육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다. 메인 시설이자 1,800명까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다용도 체육관은 경기장 및 공연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체육관 이외에도 지하층에는 체력단련실, 세미나실, 태권도훈련실 등이 마련된다. 종합체육관의 내부 시설들은 운영방식을 정한 후, 모든 학내구성원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SPACE21 사업은 갈 길이 멀다. 본래 계획 중 일부만이 완성됐을 뿐이다. 2013년 입면도를 공개할 당시의 계획대로라면 SPACE21 사업은 2016년 상반기에 마무리 돼야 한다. 그러나 사업계획에 포함됐던 건물들은 아직도 노후한 채로 그 자리에 있으며 학생들은 건물이 신축되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SPACE21의 1단계 완공을 마냥 기쁘게만 받아들일 수 없는 노릇이다.

# 학군사관(ROTC) 58·59기 모집안내

## 2017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 지원자격

- 연령 : 임관일 기준(만20~27세 이하인 남·여)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 학군 제58기(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는 3학년 재학생)
- 학군 제59기(남자만 해당) :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는 2학년 재학생)

###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 기간 : 2017년 3월 1일~3월 31일
- 방법 : 인터넷www.armyofficer.mil.kr [지원자 접수]란 이용
- 일정
  - 1차 필기고사 : 4. 8.(토), 합격자 발표 : 4. 28.(금)
  - 2차 체력검정, 면접평가 : 5. 1.(월)~5. 26.(금), 합격자 발표 : 6. 16.(금)
  - 3차 신원조사, 신체검사 : 6. 19.(월)~8. 11.(금), 최종 합격자 발표 : 8. 25.(금)
- 문의처 : 육군학생군사학교(043)830-6031, 지원대학 학군단 | 서울 02-961-0085~6  
국제 031-201-3271~2



육군학생군사학교  
www.armyofficer.mil.kr

Reserve Officer Training Corp는  
대학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의 전공학문은 물론 군사지식을 갖춘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오늘의 선택  
내일의 리더  
대한민국  
ROTC

미래를 향한 젊은 도전

# ROTC!



보도

일부 학과 ‘물려주기 식’ 회장 선출 … 학생자치 위축의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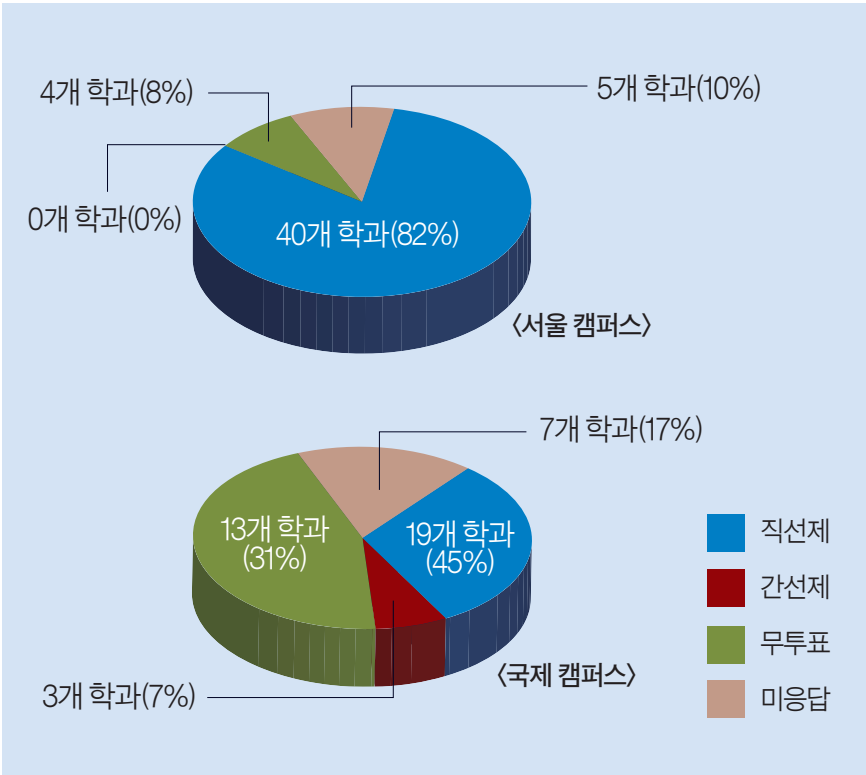
학과 학생회장 선출문제

김은수 기자 eunsu1031@khu.ac.kr  
양윤혁 기자 yangyun0820@khu.ac.kr

20여 개에 달하는 학과에서 학생회장 선출이 임의적인 방식을 통해 이뤄진다는 문제제기가 학생 사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과 학생회 측에선 ‘이전과는 달리 학생들이 학과 학생회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 회장 후보 찾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 회칙에는 학과 학생회장 선출에 대한 내용이 따로 언급돼있지 않지만,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 회칙에는 학과 학생회장을 투표로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제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지 않는 학과가 많은 탓에, 일부 학생들이 우리학교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통해 학생 대표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향후 학생회장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리 신문이 양 캠퍼스 학과 학생회장 선출 방식을 조사한 결과, 취재에 응답한 학과들 중 학생 구성원이 직접 투표로 대표를 선출하는 학과는 서울캠 82%, 국제캠 45%에 불과했다. 서울캠 8%와 국제캠 31%의 학과는 직선제 대신 ‘물려주기 식’으로 학생회장을 선출했고, 국제캠 전자정보대학 소속 학과들은 ‘동아리 위주’로 운영되는 학과 특성상 각 동아리장들과 전임



학생회만 투표하는 ‘간선제’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학생들은 투표를 거치지 않은 학과 내 대표 선출의 ‘신뢰성’ 및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실제로 지난 12월 22일 페이스북 페이지 ‘경희대학교 대나무숲’에는 ‘학년 대표가 투표를 거치지 않고 결정됐다’는 글이 게시됐다. 이 글에서 작성자는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에 졸업작품전을 준비하는 과 특성상, 3학년 대표의

역할이 중요해 늘 투표를 거쳐 왔다’며 ‘올해는 학년 대표를 선출할 시기가 되어 후보로 추천 받은 2명 중, 투표 없이 학생회 선배들의 추천만으로 한 명이 임의로 과대가 됐다’고 토로했다. 또 공과대학에 재학 중인 권민중(기계공학 2012) 군도 “과 학생회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며 “입학 후 단 한 번도 학생회장 후보를 모집하거나 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단과대학별, 학과별 세칙을 정해두지 않는 곳이 많아 단과대학 및 학과들은 대개 총학회칙을 따르게 된다. 그런데 서울캠 총학생회 회칙에는 학생대표 선출에 관한 세칙이 마련돼 있지 않다. 단지 ‘각 과·전공·학부 학생회칙에 따라 자치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만 나타나 있어 자율적으로 과 학생회장을 선출하고 있다. 반면, 국제캠의 경우에는 총학회칙에 학과 학생회장 선출에 관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 국제캠 총학회칙 11장 111조 2항에 따르면 ‘과 학생회장은 과 학생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회칙에 따라 선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본 항의 예외규정으로 ‘선출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크게 부담하여 해당 회원 내에서 이의가 제기될 경우’에 한해 단과대학 학생회가 개입해 선출을 돕는다고 부연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캠 학과의 절반 이상이 직선제 선출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운용되는 ‘학과 학생회장의 임기’도 학과별로 제각각이다. 국제캠 회칙에는 ‘과 학생회장과 부과 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미선출시 임기는 차기 학생회장이 선출될 때까지이며 최대 기간은 다음해 3월 31일까지’라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명시돼있다. 하지만 우리 신문의 취재 결과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 예컨대 학생회장의 개인 사정에 따라 임기가 변동되는 학과들이 존재했다. 심지어

신입생 OT를 준비하는 시기에 인수인계를 받는 학과의 경우에는 정확한 임기를 파악할 수조차 없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자구적으로 학과 학생회장 선출 방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곳도 있다.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의 경우 현 학생회장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공약을 지난 2월 22일 게시하며 향후 학부 별도의 세칙을 만들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학생회 오승준(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11) 회장은 “총학 세칙에 따라 학부만의 세칙을 만들 예정”이라며 “이 세칙은 다음 학년대표 선출과 함께 본 인에게도 적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학생회장 선출 문제가 발생하는 데에는 최근 위축돼가는 학생자치가 그 뒤에 있다는 것이 학생회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전과는 달리 학과 내 문화가 취업 준비 등으로 인해 개인주의로 변하고 있고, 실제로 학생회장 및 집행부에게 돌아가는 보상에 비해 희생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집행부를 향한 주변의 인식이 나빠지고 있는 것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한국어학과 학생회의 진병학(한국어학 2014) 회장은 “학생회장과 집행부들은 대부분 학과에 애정을 갖고 개인시간을 투자해 일을 도맡아하고 있지만 일부 굵직 않은 시선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과 대표이니만큼 다음 학생회장은 공개적인 입후보와 투표제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 교원양성기관 평가 C등급 … 2018년부터 교직이수 인원 30% 감축

교직이수 선발인원 감축

류제원 기자 jennyoo95@khu.ac.kr

우리학교 교직이수 선발인원이 2018년부터 30% 감축된다. 교육부와 한국개발교육원에서 진행한 ‘2016년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2016년 양 캠퍼스 통합 교직이수 선발인원 197명의 30%인 약 60명이 감축될 예정이다.

그러나 학과 당 평가영역별 구체적인

점수에 대해 교무과 교직원 백지원 계장은 “교직이수자들의 임용고시 합격률이나 교수의 연구실적 등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작년 7월부터 12월 초까지 일반대학교 중 교육과와 교직과정인 설치된 107개교 242개 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부는 기관의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교원양성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관의 자기발전 노력을 유도하여 우수교원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1998년부터 교원

양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가 교원양성 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과잉 양성되고 있는 교원양성 규모를 적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특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과 같이 교육의 질이 열악한 기관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2016년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 특성화 4개 영역에 걸쳐 서면평가와 현장방문, 재학생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각 영역별 점

수는 학과단위 점수로 변환하여 산출하며, 이를 종합하여 학교의 평가등급이 결정된다.

평가등급은 각 평가지표 점수의 합에 따라 A, B, C, D, E등급으로 구분되며 A등급을 받은 기관은 교육부장관표창을 수여 받고, B등급 기관은 현행유지 된다. C등급 이하부터는 각 등급에 따라 정원의 30%(C등급), 50%(D등급), 100%(폐지·E등급)에 대해 감원 조치를 받게 된다. 교직이수 과정이 설치된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학 중 B등급은 서강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

대학교 등이 있으며 C등급은 우리 학교를 비롯해 국민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숭실대학교 등이 있다. 이번 평가 결과, 교직과정인 설치된 55개 학과 중 A등급이 1곳, B등급이 16곳, C등급이 29곳, D등급이 9 곳이다.

2018 교직이수 선발인원 변동에 대해 교직원 백 계장은 “교육부에서 보내준 평가지표와 자격증 취득률, 임용고시 합격률 등을 종합해 학과별 변동이 있을 예정”이라며 “이번주 내로 교육부에 변동 인원수에 대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박사 빠른 소식을 원한다면  
각종 뉴스의 링크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기자들의 취재단상이 궁금하다면  
제보하고 싶는데 어디다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일의 날씨와 같은 소소한 정보까지 얻어가고 싶다면

주저말고 지금,

대학주보와 친구가 되어 주세요  
SNS에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 ▶ 핀터레스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 ▶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 ▶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 새로운 인재상 부합하는 진로지도 되어야

전문가 칼럼

김홍유  
한국취업진로학회장



3월은 대학가에 새내기들이 들어오는 입학시즌이다. 이 때면 늘 그랬듯이 대학가 주변의 주점을 비롯한 다양한 장소에서 선·후배들의 만남과 선배들의 경험담에 기초한 진로상담이 이루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과거에는 좋은 대학과 학과에 진학하는 것만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치부됐다. 그러나 요즘같이 취업시장이 경색된 환경은 새내기들의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진로지도가 절실한 실정이다.

대학의 진로지도란 전공, 취업은 물론이고 직업 교육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생애 관계의 지도이다. 자신과 직업을 이해하고 합당한 일의 세계를 찾는 활동뿐 아니라 일의 세계를 탐색, 결정, 준비하고 그에 따른 직업을 선택하며, 잘 적응해 더 발전할 수 있을 때까지 직업적 발달을 돕는 전 과정을 진로지도라 한다. 학생들의 취업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교수로서 진로지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더 실감하고 있다.

취업을 준비 중인 많은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공통적인 문제를 발견하곤 한다. 학생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취업, 진로라는 하나의 문제로 귀결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 삶에서 스스로 애써 얻으려는 것, 위험을 감수할 만한 것, 그리고 수년 또는 평생을 바칠 만한 것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많은 좌절과 시간의 낭비, 심하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좌절과 방황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질적



앞이 보이지 않는 고용경제 터널은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일상화 시킨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대학의 공급자 중심이 아닌 학생의 다양성을 배려한 진로지도가 더 필요하다.

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지도에 대한 반성과 함께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학생에게 학년에 맞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한 지도를 우선해야 한다. 그 단계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

우선 1학년은 “자기분석”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대학 학과에 따라 자신의 진로계획에 대해서 진지한 자기탐색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진로지도는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탐색방법이다. 자신이 누구이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같은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를 행해야 할 교육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실적(취업률)위주나 공급자 위주의 진로지도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과 학과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관점의 진로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2학년들은 자기분석에 따른 “직종탐구와 어학 및 직무능력 준비”에 노력을 해야겠다. 수많은 직종 중에서 나의 성격과 특성에 맞는 분야가 무엇인지 다양한 통로를 활용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분석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교양과 직무관련 준비도 시작해야 한다. 취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역량을 갖추는 중요한 시기이다.

3학년들은 “기업분석 및 역량(인턴)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입사전략을 세우고 직종에 따른 경험적 준비, 즉 인턴의 경험을 중요시해야 한다. 그리고 4학년 학생들은 다양한 취업 스킬 업(Skill up)단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면접요령, 지원전략, 프리젠테이션 기법, 자기소개서 등 각종 취업과 관련된 미시적인 현안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야겠다. 결국에 대학에서는 학생 자신의 특성을 발견해서 이해시키고, 일의 세계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진정한 의미의 취업 및 진로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학생들은 지금도 앞이 보이지 않는 고용경제 터널을 지나고 있다.

전 세계에 불어 닥친 고용경제의 한파에 따른 사회의 불안한 변화는 대학교를 나서는 젊은이들에게 청년실업이라는 무거운 현실을 안겨주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인 교육정책 및 학사지도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나 정책부서는 재정적인 지원이라는 큰 무기를 가지고 대학의 학사운영과 단과대학의 학사지도에 대한 직간접으로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이고 공급자 위주의 학사운영에 그칠 수밖에 없고 학생들의 다양성을 배제한 획일적인 교육방식이다. 교육의 핵심인 미래가치에 근거한 인재양성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학교가 학생들의 학사지도에 따른 미션을 가지고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성에 입각한 다양한 진로지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형식적인 진로지도를 과감히 개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학생의 미래를 정부의 지원책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참여마당

송예진  
(국어국문과 2015)



## ‘#OO\_내\_성폭력’ 경희대는 안전한가?

얼마 전 트위터에서 ‘#OO\_내\_성폭력’ 해시태그를 통해 공동체 내 성폭력이 고발됐다.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역시 ‘가해지목인’ A에게 2017학년도 1학기 수업을 배당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국문과는 작년 3월 권력형 성폭력이 공론화되었으나 학내 기구에서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바 있다. 이때, 학과는 ‘가해지목인’ B에게 필수 강의를 배당했다. 경희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인가?

경희대 성평등상담실에서 서울캠퍼스 재학생 1,3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 재학생 성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교내에서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13.5%를 차지한다.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친구·학과 선후배’가 24.8%로 가장 높으며, ‘학교 선생님·교수·강사 등’도 4.5%로 권력형 성범죄의 가능성을 암시했다. ‘성희롱·성폭력을 겪었을 때 대처 방식’에 관해선 ‘불쾌했지만, 계속 봐야 할 사람’이므로 참았다’가 20%, ‘대응을 못하고, 나중에 주변인들에게 얘기하고 기분을 풀었다’가 44.2%를 차지했다. 신고하거나 전문 기관에 상담한 경험은 2.1%에 그쳤다. ‘성희롱·성폭력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이유’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가 43.1%, ‘문제를 제기해 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해서’가 15.5%를 차지했다. 경희대는 성폭력 피해가 침묵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은 공동체였다.

### 보호장치 부재의 공간 대학, 구성원의 목소리 필요해

슈워츠(Schwartz,et.al)는 여성주의 일상행위이론으로써 대학교 성폭력 조건이 갖추어진 공간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북미의 ‘강간문화(rape-supportive culture)’를 예시로, 성폭력적 행위를 지지하는 남성을 ‘준비된 가해자’, 엄중한 처벌이 불가능한 기관을 ‘보호 장치 부재’의 공간, 강간의 책임을 내면화시켜 신고하지 않는 여성들을 ‘적절한 피해자’라고 설정했다. 대학교 내 성폭력 피해가 침묵으로 그치는 현상은 위 요건들이 작용한 결과이다.

‘피해자 중심주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성폭력을 비판하는 구성원 또한 ‘보호 장치 부재’를 심화시킬 수 있다. 성폭력 고발을 공동체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구성원은 ‘앞으로 나서는 않는’ 피해자를 의심한다. 우선적으로 피해자 보호나 엄중한 처벌에 취약한 공동체를 자성해야 마땅하지만 ‘사실이라면 신고하라’는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구성원에게 ‘보호 장치 부재’를 인식시키며 또 다른 피해가 일어나도 위장된 평화가 지속될 공동체를 탄생시킨다.

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학칙, 내부 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48.8%를 차지했다. 대학은 일상적인 공간으로 구성원 모두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상대적으로 권력이 낮은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발할 경우 집단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높다. ‘보호 장치 부재’의 공간, 대학, 성폭력 피해자가 안전한 공간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구성원 전체의 목소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J**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기획 - <구성원이 바란다>

교수·교직원 ‘재정정책 변화’ … 학생 ‘교육의 질 확대’

2017학년도 구성원 인식조사

양윤혁 기자 yangyun0820@khu.ac.kr

# 어느새 다가온 2017학년도 1학기, 우리 신문은 개각을 맞아 우리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구성원들이 생각한 지난해의 문제점과, 우리학교에 필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설문조사는 지난 2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진행돼, 교수 44명과 교직원 52명, 양 캠퍼스 학생 698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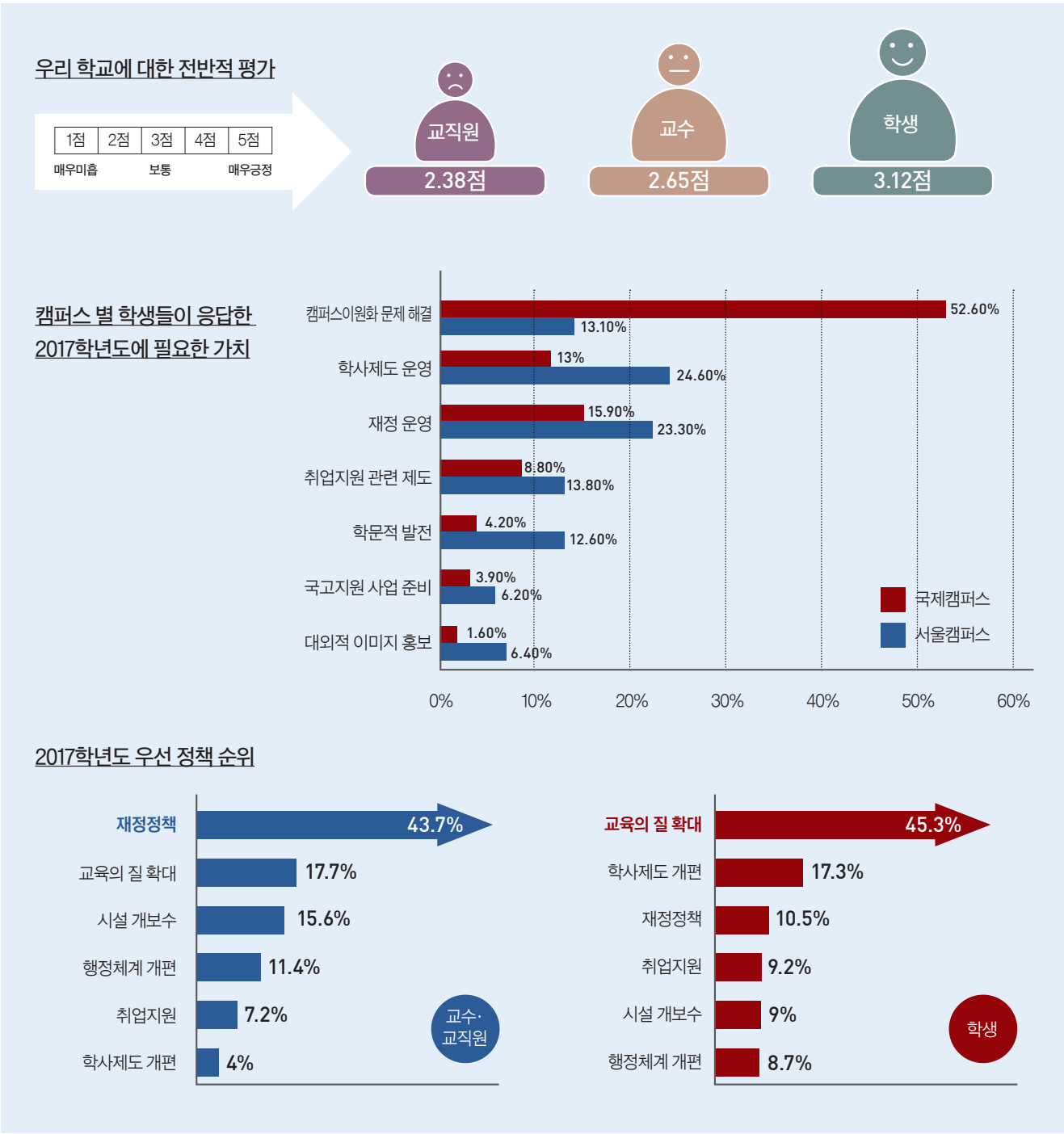
전반적인 평가...“보통~미흡”

우리 신문은 먼저 ‘지난 해 우리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교수와 학생의 응답 중 ‘보통’이 가장 높아 각각 29.5%, 38.9%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직원 중 가장 많은 응답은 ‘미흡(30.7%)’이었다. 다음으로 교수는 ‘긍정과 미흡’이 22.7%로 같았고, 학생은 ‘긍정(31.8%)’이 뒤를 이었다.

일반적으로 ‘보통’을 택한 경우가 많은 것은 응답자의 관여도, 즉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분석된다. 조수영(언론정보학) 교수는 “보통 관여도가 떨어지는 사안에 대해 사람들은 보통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한다. 실제로 응답자들은 기타 의견을 통해 ‘특별히 뛰어난 점도, 부족한 점도 찾기 어렵다’, ‘두루 괜찮다’며 긍정적인 견해와 함께 ‘특색이 없다’는 비판 역시 제기한다. ‘매우 미흡’부터 ‘매우 긍정’을 1점에서 5점 순으로 환산했을 때, 응답집단 별 평균치는 교수 2.65점, 교직원 2.38점, 학생 3.12점으로 나타났다.

2016학년도 가장 빛난 점... “학문적 발전”

‘지난해 우리학교의 가장 뛰어났던 점’에 대한 평가는 교수·교직원·학생 모두 ‘학문적 발전’으로 일치했다. 교수의 경우 30.9%, 교직원이 21%, 학생은 27.5%가 이를 택했다. ‘학문적 발전’을 지난해 우리학교의 가장 뛰어났던 점이라고 생각한 이유로는 ‘국제화 부분에 강세를 보이는 점이 긍정적이다’, ‘대학이 취업을 위한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요즘, 인문학적 소양을 증진시키지 않는 대학다운 대학’, ‘국제적 수준의 교육 투자’, ‘후마니타스칼리지와 같은 교양 시스템이 잘 구축돼있다’고 답변했다.



2017학년도 필요한 가치는?

‘지난해 우리학교의 가장 부족했던 점’에 대해 교수(34%)와 교직원(69.2%)은 ‘재정운용’을 일순위로 꼽았다. 실제로 오는 2017학년도에 우리학교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 교수(31.8%)·교직원(65.3%)은 역시 ‘재정 운용’의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실제로 부서 예산 감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각 행정부처 측에선 곤란함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직원의 답변 중에는 ‘전공 수업은 적게 개설되거나 부족했다’며 재정 문제가 교육

의 질적 측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는 교강사 채용 시 단과대학의 비용부담을 제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수들은 재정문제가 연구 역량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연구 및 교육 환경의 낙후’, ‘이공대의 우수한 신진 교수들이 타교로 이직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입장도 있었다. 최근의 재정악화가 교육과 교수 연구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목소리다. 그리고 학생들은 ‘지난해 우리학교의 가장 부족했던 점’에 대해 ‘캠퍼스이원화 문제(30.5%)’, ‘재정운용(20%)’, ‘학사제도 운

영(19.4%)’의 순으로 응답했다. 하지만 ‘캠퍼스이원화 문제’는 대체적으로 국제캠퍼스(국제캠) 학생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캠퍼스이원화 문제’라고 답변한 학생 총 202명 중 156명이 국제캠 학생이었고, 서울캠퍼스(서울캠) 학생은 46명에 불과했다. 서울캠 학생은 대신 ‘학사제도 운영(24.6%)’과 ‘재정 운용(21.7%)’ 등 비교적 다양한 답변을 내놓았다. 국제캠 학생들이 주로 ‘캠퍼스이원화 문제’를 지칭한 것은 지난 프라임사업 당시 기대했던 학제개편, 중복 커리큘럼 정리 등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구성원이 뽑은 2017 우선 정책 순위

교수와 교직원 모두 ‘재정정책’을 가장 우선으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 ‘교육의 질 확대’를 꼽았다. ‘재정정책’을 꼽은 교수와 교직원은 43.7%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교육의 질 확대(15.6%)’가 두 번째로 많이 응답했다. 앞선 문항에서 ‘재정문제’가 교수 연구역량을 확대하고 강좌 수를 확대하는 데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과 일치하는 하는 결과다. 반면 학생의 경우 ‘교육의 질 확대’가 45.3%로 가장 앞섰고, 그 다음으로 ‘학사제도 개편(17.3%)’과 ‘시설 개보수(15.6%)’ 뒤를 이었다. ‘재정정책’의 경우 10.5%로 나타나 세 번째에 위치했다. 이는 수강신청 가능한 강좌 수가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매번 수강신청 대란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 배경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7학년도 구성원이 바라는 개선사항

이밖에도 주관식 응답 중 ‘우리학교에 바라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공간 문제, 소통 문제 등이 제기됐다. 특히 교수와 학생들 모두 이공계열 실험시설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이공계열 실험공간과 관련해서는, 지난 SPACE21 사업 구상 당시 신축이 예정됐던 ‘신공학관’ 건설이 연기된 바 있다. 학생과 교수 모두 ‘실험 공간 부족 문제’와 ‘SPACE21 사업을 통한 시설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교수 답변 중에는 ‘SPACE21 사업을 통한 시설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었고, 학생 답변 중 ‘공과대학 내 실험 공간 부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줬으면 한다’, ‘교훈으로 민주화를 표방하는 한편 학교 행정체계에는 민주적 절차가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외에도 대학본부의 소통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교수 답변 중에는 교직원 중엔 ‘대외적으로 이원화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아직 미흡하지만 학교 차원의 노력이 없다’는 답변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부족한 측면으로서 대체로 많은 응답을 얻은 ‘재정 문제’로 인한 제반 문제와 강의증설은 ‘교육의 질’로, 연구지원비와 부서예산 감축의 경우 ‘연구 역량’의 문제로 이어진다. 또한 SPACE21 사업 연기 및 축소는 ‘공간 문제’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재정문제 해결이 향후 구성원들이 바라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7년 예비군업무 주요 변경 / 휴일, 전국단위훈련 신청 안내

- 17년 예비군업무주요변경사항
  - 예비군훈련보상비인상
    - 항방훈련(항방기본, 동미참)교통비: 6,000원→7,000원 \*급식비는6,000원
    - 동원훈련보상금: 7,000원→10,000원 \*교통비는거리별 차등지급
  - 항방훈련(항방기본, 동미참)교통비지급방법변경: 현금→계좌이체  
※ 학교종합정보시스템에등록된계좌번호로지급
- 휴일/전국단위훈련신청안내
  - ※ 예비군이기타사유로타지역의훈련장에서훈련을받을수있도록교육훈련편의를제공하는제도
  - 신청방법: 인터넷예비군홈페이지(www.yebigun.mil.kr)공인인증서로그인→휴일/전국단위훈련신청클릭→훈련유형, 희망지역, 희망훈련장, 희망계획, 훈련신청예비군부대선택→인적사항입력클릭→전국단위예비군훈련신청서내용확인→훈련신청클릭
  - 휴일예비군훈련
    - 적용훈련: 동미참훈련(출,퇴근), 항방기본훈련, 항방작계훈련(1차, 2차)
    - 휴일예비군 훈련은 1개월이전에 훈련일정공지
    - 예비군은 인터넷으로 훈련실시 3일전까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전국단위훈련
    - 적용훈련: 동미참훈련(출,퇴근), 항방기본훈련, 항방작계훈련(2차)
    - 훈련부대에서는 훈련일 1개월이전에 훈련일정공지
    - 예비군은 인터넷으로 훈련실시 3일전까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 휴일/전국단위훈련신청삭제(취소)는신청일당일까지만가능하며, 신청내역변경(수정)은1회로제한되며 훈련일을제외한 3일전까지만가능
- 기타문의: 서울 02-961-0148~9번과국제031-201-3265~9번으로연락바람

경희대학교 예비군연대본부

요즘 잘 나가는 저 선배

도대체 비결이 뭐야?

삼성의 소식을 가장 먼저 받는 삼성그룹 소셜 미디어!

2017 공개채용

삼성블로그 blog.samsung.com | 삼성페이스북 www.facebook.com/samsung | 삼성캐스트 www.samsung.co.kr/samsungcast | 삼성 카카오프러스친구 카카오프러스친구>검색>삼성